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397>

JCCT 2022-11-48

## 대학생의 교수친교형 학습활동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Teaching-Friendly Learning Activitie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김경희\*

KIM KYUNG HEE\*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교수친교형 학습활동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이 학습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2학년 1학기 G지역 소재 대학의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2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생의 교수친교형 학습활동이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0.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대응표본 t검증,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교수친교형 학습활동이 대학생활적응 중 학업적 적응, 정서적 적응, 사회적 적응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과대학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 집단의 대학에 대한 애착 수준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3학년 집단의 대학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결론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대학생, 학업, 대학생활적응, 교수친교형 학습활동, 학습자 특성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teaching-friendly learning activities on college life adaptation, and to examine whether these effects differ according to learner characteristics. To this end, 214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learning program of universities located in G area in the first semester of 2022 were targeted. In order to find out the effect of teaching-friendly learning activities on college students' adaptability to college life, frequency analysis, response sample t-verification,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one-way Anova) were conducted using SPSS 20.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eaching-friendly learning activitie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scores of academic adaptation, emotional adaptation, and social adaptation in college life adaptation. Seco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adaptation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college. Third, The score of the level of attachment to universities was found to be higher in the female group than in the male group. Fourth,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grade, it was found that the third-grade group had a high level of attachment to universities. Conclusions and suggestions for these research results were presented.

**Key words** : College Student, College Life Adaptation, Teaching Friendly Learning Activities, Learner Characteristics

\*정희원, 동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단독저자)  
접수일: 2022년 10월 6일, 수정완료일: 2022년 10월 27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3일

Received: October 6, 2022 / Revised: October 27, 2022

Accepted: November 3, 2022

\*Corresponding Author: smkh22@hanmail.net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ongshin Univ, Korea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로[1],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과 동시에 성인기를 준비하며 인지·정서적 발달과 대학생활적응의 과업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생활적응이 선행되어야 한다[2]. 과거의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면, 스스로 대학이라는 환경에 적응해 나갔지만, 최근에는 대학의 책무성과 질 제고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는 과정 동안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생의 적응은 대학생들이 주어진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대학의 물리·사회적인 요구에 대처해가는 과정이다[3]. 즉 이들의 주요 생활 터전이 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문적, 사회적, 심리적 요구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때는 적응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부적응이 발생한다. 대학생의 시기는 대학생활적응 여부는 대학생 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다[4,5].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7]. 선행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는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교수학습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학습개발원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대학의 교수학습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공기초 및 심화 학습, 학습동기 및 학업적응, 학습전략에 대한 지식을 제공과 친밀한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9].

대학생활적응의 초기 연구에서는 학업적 성취만을 적응 여부로 보았으나, 그 외의 다양한 측면들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대학에 대한 기대 등의 측면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10]. Baker와 Siryk는 개인 내적인 적응 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의

적응을 포함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4가지로 구분하였다[11]. 첫째는 학업적 적응으로 전과는 다른 대학에서의 학업적 환경에 적응하고 여러 가지 학업적 요구에 잘 대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학업적 적응으로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전공에 대해 이해, 교수의 지지 등이 요구된다[12]. 둘째는 사회적 적응인데, 사회적 적응은 대학이라는 사회적 삶에 적응하는 정도로 안정적으로 개인에게 지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관계(친구, 부모)를 형성하고 새로운 관계를 관리하는 능력, 교수, 교수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포함한다[13]. 셋째는 정서적 적응이다. 정서적 적응은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자기 가치, 삶의 방향성, 상호관계성 등 개인의 인성 형성에 핵심이 되는 자기 탐색 과정을 통해 정서적으로 적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14]. 넷째는 일반적 대학적응(대학에의 만족)으로, 이는 대학에 대한 애착 정도와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학업적 목표에 대한 몰입 정도를 의미한다[15].

대학생의 적응 및 성장에 영향을 주는 대학생활경험들은 학생의 인적배경, 대학의 구조적·조직적 특성,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 대학환경, 학생활동의 질 등이며[1,16], 그 중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 교수-학생 상호작용이다. 대학에서 수업, 수업의 활동, 비공식적 활동에서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커질수록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17].

대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주요한 구성원 중 하나는 교수인데, 교수는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지식, 학업과 진로에 대한 조언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그동안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대학생의 인지적 발달, 학업성취, 대학 만족도, 진로 선택 등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8,19,20,21,22,23,24],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학생-교수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25]. 이러한 결과들은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이 대학생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을 제공하여 학업적응 및 대학생활적응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의 적응을 높이기 위해 교수-학생 간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교수는 과거의 가르치는 역할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다양한 학습경험을 의미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 조력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26]. 학생들이 교수와 수업에 관련된 토론을 하거나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수의 지지와 상담 등을 하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학생들이 대학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학과 소속감, 전공적응 등에 의미있게 작용한다[17,23]. Astin(1993)은 수업과 수업 외 활동에서 교수-학생이 자주 접촉할수록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 대학생활적응과 만족도는 커진다고 하였다[17].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성별이나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녀 성별에 따라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주로 나타나고 있으나[19,21,27,28], 일부 연구에서는 상이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22]. 또 학년에 따른 연구에서는 1학년과 비교했을 때 2~4학년으로 학년이 진급할수록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22,28]. 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개 단과대학 중 인문대학을 준거로 분석한 결과 사범대학, 사회대학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고, 전공을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로 분석한 유현숙 외(2012, 2013)의 연구에 따르면 이공계열 학생들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수준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28,2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이 기초학습, 전공기초와 관련된 학습활동 이외에 교수-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동기, 학업적응,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학습활동을 교수친교형 유형으로 구분하여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생이 수업 외 영역에서 전공이해와 학업적응을 돕는 팀활동을 교수친교형으로 유형화하였다. 교수친교형 학습활동에서는 학업동기 향상, 전공 및 학업적응,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이루어지는 세부 내용으로 활동이 구성된다. 이러한 교수친교형 학습활동은 대학교육의 핵심으로 전공이해를 높임으로서 학업적응 및 대학생활적응을 돕고 대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기주도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한다[30].

## II.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교수친교형 학습활동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대학생활적응을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영향이 학습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교수친교형 학습활동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근거를 확인한다.
- 2) 단과대학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차이의 근거를 확인한다.
- 3)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의 근거를 확인한다.
- 4)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의 근거를 확인한다.

## III. 연구설계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1학년 1학기 G지역 소재 대학의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한 2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구분		N(%)
성별	남	99 (46.3)
	여	115 (53.7)
학년	1학년	56 (26.2)
	2학년	67 (31.3)
	3학년	32 (15.0)
	4학년	59 (27.6)
단과대학	공과대학	32 (15.0)
	한외과대학	37 (17.3)
	보건복지대학	54 (25.2)
	인문사회과학대학	53 (24.8)
	문화관광대학	38 (17.8)
전체		214

### 2. 연구도구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iryk가 제작한 대학생 적응도 검사(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에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31]. 이 척도는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표기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1999)의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85였고,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 신뢰도 계수는 .86이며[32], 하위요인별로는 학업적 적응 .69, 사회적 적응 .62, 정서적 적응 .80, 신체적 적응 .67, 대학에 대한 애착 .73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설계

본 연구대상자 214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는 프로그램 실시 전인 3월 셋째 주에 실시하였다. 이후 연구대상자들은 8주간 학습활동에 참여 후 5월 마지막 주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 4. 연구절차

#### 4.1. 대학생의 교수친교형 학습활동의 절차

본 연구의 대학생의 교수친교형 학습활동은 G지역 소재 대학에서 매학기 개설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교수친교형 학습활동은 전공지식의 습득이나 성취를 목표로 하는 다른 비교과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교수-학생 간, 학생-학생 간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대학생활적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전인적인 학습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친교형 학습활동은 매학기 초 전체 구성원에서 공지가 되며, 교수와 학생이 자발적으로 팀(8-15명)으로 구성하여, 교수친교형 학습활동에 부합하는 주제와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 제출 후 선정된 팀은 8주의 교수친교형 학습활동을 진행한다. 본 연구대상은 25개 팀의 학생 214명이다.

#### 4.2. 대학생의 교수친교형 학습활동의 구성

교수친교형 학습활동의 목적은 교수-학생 간, 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동기 향상과 학업적응 및 대학생활적응 능력 향상이다. 이러한 교수친교형 학습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내 기관에서는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학습활동의 내용을 표 2와 같이 제시하여 다음과 같은 범주 내에서 교수와 학생이 함께 8주의 학습활동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교수친교형 학습활동의 내용

Table 2. Contents of teaching-friendly learning activities

구분	내용
학업적 적응	학습법 공유(활동지 제공), 전공기관탐방
사회적 적응	문화활동, 독서, 정보공유
정서적 적응	교수님과 식사, 학습상담 및 생활지도
신체적 적응	다양한 체육활동, 산행
대학에 대한애착	지역사회연계 활동, 선배와의 만남

###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교수친교형 학습활동이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0.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빈도분석, 대응표본 t 검증,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교수친교형 학습활동이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수친교형 학습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전-사후 대학생활 적응도 점수 차이는 표2와 같다. 대학생활 적응도의 전체 점수가 71.84에서 81.50으로 상승하였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하위요인별로는 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으나( $p < .001$ ), 신체적 적응과 대학에 대한 애착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05$ ).

표 3. 학습활동 참여자의 사전-사후 대학생활 적응도 점수 차이  
Table 3. Difference in pre- and post-college life adaptation scores of learning activity participants

구분	Pre MSD	Post MSD	t	p
학업적 적응	12.86(2.52)	14.91(2.25)	-9.22***	.000
사회적 적응	17.37(2.25)	18.88(3.18)	-6.91***	.000
정서적 적응	11.93(3.85)	18.12(3.98)	-13.19***	.000
신체적 적응	14.92(2.20)	14.87(2.97)	0.23	.813
대학에 대한 애착	14.71(1.84)	14.73(1.92)	-0.19	.850
전체	71.84(8.30)	81.50(7.01)	-11.94***	.000

\* $p < .05$ , \*\* $p < .01$ , \*\*\* $p < .001$ .

### 2. 단과대학, 성별,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점수의 차이

단과대학, 성별, 학년에 따른 대학생 적응도 점수 차이를 살펴보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그 결과는 표 4, 표 5, 표 6과 같다. 먼저 단과대학에 따른 대학생 적응도 점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단과대학에 따른 대학생 적응도 차이 검정  
 Table 4. Difference in Adaptation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College

구분		대학생활적응(대학에 대한 애착)				
		n	M(SD)	F	p	scheffe
단과 대학	공과 대학	32	79.12(6.00)	1.95	0.11	-
	한외과 대학	37	83.62(7.18)			
	보건 복지 대학	54	81.88(6.76)			
	인문 사회 과학 대학	53	81.62(7.85)			
	문화 관광 대학	38	80.76(6.33)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5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차이 검정(대학에 대한 애착)  
 Table 5. Difference in college student adaptation according to gender

구분		대학생활적응(대학에 대한 애착)				
		n	M(SD)	F	p	scheffe
성별	남	99	14.42(1.70)	4.52*	0.03	-
	여	115	14.95(1.92)			

\* $p < .05$ , \*\* $p < .01$ , \*\*\* $p < .001$ .

성별에 따른 대학생 적응도의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남학생의 대학에 대한 애착 점수는 14.42, 여학생은 14.95로 나타났으며, 대학생 적응도의 하위요인인 대학에 대한 애착이  $F=4.52$ ,  $p=0.0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 < .01$ ).

표 6.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차이 검정(대학에 대한 애착)  
 Table 6. Difference in college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grade

구분		대학생 적응도(대학에 대한 애착)				
		n	M(SD)	F	p	scheffe
학년	1학년	56	14.89(1.87)	3.43*	0.18	3학년 > 2학년
	2학년	67	14.23(1.57)			
	3학년	32	15.43(2.15)			
	4학년	59	14.67(1.79)			

\* $p < .05$ , \*\* $p < .01$ , \*\*\* $p < .001$ .

학년에 따른 대학생 적응도의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1학년의 대학에 대한 애착 점수는 14.29, 2학년의 대학에 대한 애착 점수는 14.23, 3학년의 대학에 대한 애착 점수는 15.43, 4학년의 대학에 대한 애착 점수는 14.67로 나타났다. 대학생 적응도의 하위요인인 대학에 대한 애착이  $F=3.43$ ,  $p=0.0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 < .05$ ). 사후분석인 Scheffe 검증 결과 3학년의 대학에 대한 애착 점수가 2학년의 대학에 대한 애착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교수친교형 학습활동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살피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교수친교형 학습활동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교수친교형 학습활동이 대학생활적응에 하위영역인 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에 효과적이었으나, 신체적 적응과 대학에 대한 애착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이 대학생들의 인지·정서 발달과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의 의미있는 관계를 밝힌 연구와 일치하며[18,19,20,21,22], 교수와의 상호작용 기회가 많아질수록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17,23]. 그러나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은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적응과는 다르게 단기간에 변화를 나타내기 어려운 하위요인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요인의 특성상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단과대학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일원 배치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나, 단과대학별로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과대학에 따른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준 연구들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사회대학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Choi와 Shin(2010)의 연구, 이공계열 학생들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수준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Yu et al(2012, 2013)의 연구와는 다

른 결과이다[27,28,29]. 이러한 점은 선행연구의 대학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여겨진다. 학습상황에서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이 교육의 성과와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하다[33.]

셋째,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녀 성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성별에 따라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19,21,27,28].

넷째,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3학년의 대학에 대한 애착 점수가 2학년의 대학에 대한 애착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진급할수록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7,28]. 1학년보다 2학년이 대학에 대한 애착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2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해 가면 나타나는 사회적 특성과 신입생 시기의 1학년을 지나고 2학년이 되어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대학 2학년의 특성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활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생의 교수친교형 학습활동이 필요하며, 대학생활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수-학생 간, 학생 간 다양한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영역인 학업적 적응, 정서적 적응, 사회적 적응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수친교형 학습활동 안에서 교수-학생 간, 학생 간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대학생활적응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수-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주요한 구성원 중 하나는 교수이며, 교수는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지식, 학업과 진로에 대한 조언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서는 교수-학생 간 외에 다양한 대학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적응과 대학에 대한 애착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과 같은 요인들은 한시적인 학습활동으로 변화되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대학 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Lee와 Lim(2011)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대학 내의 전공관련 실습시설, 도서관과 강의실의 환경, 책과 자료의 구비 등에 대한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지원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대학환경에 잘 적응하고, 대학에 애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는 대학 내의 이러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대학생들의 대학에 대한 애착을 돕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습자 특성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특성을 단과대학별, 성별, 학년별로 구분하여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단과대학별에서는 대학생활적응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는 과거의 가르치는 역할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다양한 학습경험을 의미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 조력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들이 교수와 수업에 관련된 토론을 하거나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수의 지지와 상담 등을 하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학생들이 대학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학과 소속감, 전공적응 등에 의미있게 작용하여 각 단과대학별로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어서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단과대학별로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의 방식과 빈도에 대한 분석과 분석 결과에 기초한 다양한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 방식을 제공하여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더 높다고 보여지며, 대학생활적응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성별 요구를 잘 분석하여 학습활동을 구성하고, 대학 내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년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3학년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따른 특성과 요구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학습자 중심의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학년별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개인적 특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년별, 성별, 학생들의 요구별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을 차별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습자 특성 뿐 아니라 대학의 환경, 풍토, 교수자 등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져 이러한 점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내용으로 교수-학생 간, 학생-학생 간 상호작용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들은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대학교에 입학한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 높은 교육, 전공별 교수방법 및 교육환경 제공,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지원 등의 방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E. K. Kim, "Effects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 on College Student Outcomes and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9, No. 4, pp. 877-875, 2005. DOI : <https://doi.org/10.17286/KJEP.2020.34.2.08>
- [2] S. J. Lee, & J. H. Yu,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3, No. 22, pp. 589-607, 2005. DOI : <https://doi.org/10.17286/KJEP.2020.34.2.08>
- [3] D. W. Hahn, K. K. Chon, J. C. Lee, & C. D. Spielberger,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 Anger and Blood Pressur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2, No.1, pp. 30-78, 1997. DOI : <https://doi.org/10.17315/kjhp.2018.23.1.001>
- [4] C. R. Nho, "A Study on University Adjustment among Returnees of Overseas",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 13, pp. 87-127, 2002.
- [5] Zastrow, C. & & Kirst-Ashman, K. "Understanding 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4th ed.)", Chicago: Nelson-Hall Pub, 1997.
- [6] M. J. Ko. & B. Y. Choi.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Regulation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Academic Stress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4, No. 6, pp.81-104, 2017.
- [7] G. S. Yoo. & D. W. Shin.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s on Academic Burnout and Employment Stres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4, No. 6, pp. 3849-3869, 2013. DOI : <https://doi.org/10.15703/kjc.14.6.201312.3849>
- [8] H. J. Jung. & M, J. Choi.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Male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5, pp. 105-117, 2018. DOI : <https://doi.org/10.35873/ajmahs.2017.7.5.010>
- [9] C. J. Song. "The Effect of Peer-tutoring program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1, pp. 93-120, 2017. DOI :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1.93>
- [10] E. W. Lee. "Impact of the Effective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College Life Adaptation", Keimyung University, 2005.
- [11] R. W. Baker. & B.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1984.
- [12] M. J. Oh.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Dearer Identity and Meaning in Life on Adjustment to Colleg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4.
- [13] S. J. Kwon, "The Effects of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Anger Rumination on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Meditation of the Anger Experience and Anger Expression", Hanyang University, 2018.
- [14] C. H. Pollans. "The psychometric properties and factor structure of the Anger EXpression (AX) Sca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outh Florida, Tampa, 1983.
- [15] J. H. Kim. "The College Adjustment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7, pp. 131-157, 2008. DOI : <https://doi.org/10.16975/kjfs.2007..21.004>
- [16] E. T. Pascarella. & P. T. Terenzini.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Findings and insights from twenty years of reseach" Sanfranciscod: Jossey-Bass, 1991.
- [17] A. W. Astin.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San Francisco: Jossey-Bass, 1993.

- [18]J. W. Ko., H. J. Kim. & M. S. Kim. "The Impact of Students' College Experiences on Students' Cognitive and Non-cognitive Outcomes, and Instructional Satisfac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29, No. 4, pp. 169-194, 2011.
- [19]S. H. Bae. & J. I. Hong. "Institutional Factors Affecting the Growth Of Active, Collaborative Student Engagement and Student-Faculty Interaction: Between-Institution Effec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53, No. 4, pp. 159-192, 2015.
- [20]J. J. Endo. & R. L. Harpel. "The effect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 on students' educational outcome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Vol. 16, No. 2, pp. 115-138, 1982.
- [21]Y. Kim. & L. Sax. "Student - Faculty interaction in research universities: Differences by student gender, race socialclass, and first-generation statu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50(5), 437-45, 2009.
- [22]G. D. Kuh. & S. Hu. "The effects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 in the 1990s", *Review of Higher Education*, Vol. 24, No. 3, pp. 309-33, 2001.
- [23]E. T. Pascarella. & P. T. Terenzini. "Student-faculty and student-peer relationships as mediators of the structural effects of undergraduate residence arrange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73, No. 6, 344-353, 1980.
- [24]L. C. Strauss. & J. F. Volkwein. "Predictors of student commitment at two-year and four-year institution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 75, No. 2, 203-227, 2004.
- [25]J. Y. Kim., W. R. Kim., Y. S. Son., & J. S. Kim. "The Mediated Effects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 Relations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8, No. 3, pp. 603-619, 2018. DOI :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1.93>
- [26]S. G. Kim. "Diversity and Integration: Imagination for the Science of Erudition", *The Journal of Future Education*, Vol. 2, No. 3, pp. 1-8, 2012.
- [27]J. W. Choi. & H. S. Shin. "The Nature and Effects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 on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in Korean Universities: Focusing on Effects of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37, No. 2, pp. 131-154, 2010. DOI : <https://doi.org/10.22804/jke.2010.37.2.006>
- [28]H. S. Yoo., J. M. Lee., J. Y. Choi., M. H. Kim., H. J. Byun., & B. G. Choi. "Research on Strateg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University Teaching and Learning (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3.
- [29]H. S. Yoo., H. N. Lim., J. Y. Choi., Y. I. Seo., H. S. Shin., & J. W. Go. "Study on the Study Proces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II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2.
- [30]H. J. Kim. "Path Analysis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Self-directed Learning, and Institutional Commitment to Impact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th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 29, No. 1, pp. 40-50, 2020.
- [31]Y. J. Son. "How Participation In Clubs or Recreational Activities Impact On The College Life", Myongji University, 2003.
- [32]Y. J. Lee. "The Non-Residential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Plans", Ewha Women's University, 1999.
- [33]S. J. Lee., S. H. Kim. & H. K. Kim. "The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High School Students' Satisfaction",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Vol. 5, No. 2, pp. 143-166, 2016.
- [34]Y. M. Lee. & J. Y. Lim. "An Investigation on the Influential Factors of University Adjustment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Vol. 7, No. 4, pp.89-118, 2011. DOI : <https://doi.org/10.35637/lehrd.2011.7.4.002>